

약물남용의 재발 예방을 위한 인지행동접근법의 효과성*

김용석**

본 연구는 약물남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지행동 접근법에 기초한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한 요인으로는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 대처기술이다. 인지행동접근법은 약물남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인지적·행동적 요인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 모두 통계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았지만,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 실시 전과 비교하여 약물사용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약물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인지적 능력과 문제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를 통해 인지행동접근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구결과를 축적해 표준화된 치료모델을 개발하는 노력이

* 이 논문은 1999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1999-003-C00441).

** 가톨릭대학교 사회과학부 사회복지전공 조교수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효과성이 입증된 인지행동접근법과 더불어 약물사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지지적 사회관계망 형성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클라이언트의 노력만으로 약물사용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프로그램 이후에도 약물에 대한 욕구, 위기상황 등 자신들의 문제 또는 성공사례 등을 서로 토의하고 배울 수 있는 자조집단 등을 형성하는 것도 약물중독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일 것이다.

1. 서론

사회복지학과와 실천현장에서 약물남용과 약물중독의 문제가 다른 사회문제에 비해 덜 다루어져왔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예로 사회복지학계의 대표적인 학회지라고 할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학에서 약물남용 및 중독을 다루는 논문이 전무하다는 사실이 사회복지실천 클라이언트의 약물과 관련된 문제가 소외되어왔다는 사실을 잘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외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약물사용 인구를 파악하기 위한 역학조사가 실시된 바가 없어 약물사용 인구의 비율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99년 상반기 마약류 사범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6.8%가 증가하였다는 최근의 자료(대검찰청, 2000)는 우리 나라에서도 약물사용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약물을 사용하는 계층도 다양해져 주부와 일부 청소년들도 약물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약물사용인구의 증가와 일반적으로 알려진 약물남용의 높은 재발율에도 불구하고 클라이언트의 약물문제에 대한 저조한 관심은 현행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치료와 재활보다는 처벌위주의 분위기로 인해 대부분의 치료시설에서는 음주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들만을 상대하고 있고 알코올 이외의 약물사용으로 인해 법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수강명령을 통해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수강명령 프로그램의 경우 단기간에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도 불분명하다. 또한 높은 재발율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대상자들에게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프로그램의 평가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약물남용으로부터 회복되고

원활한 사회복귀를 기대하기란 요원하다.

약물남용의 재발과 관련된 연구에 의하면, 재발의 거의 70%가 스트레스 상황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하고 있다(Marlatt, 1983).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약물사용의 재발에 앞서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들은 불안, 우울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부정적 감정상태는 분노와 좌절을 야기하는 대인관계상의 문제, 약물사용을 권유하는 주위의 압력 등과 같은 고위험 상황과 관련이 있어 고위험 상황이 재발의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이다(Littleton, 1998; Marlatt, 1983). 최근 약물중독 치료의 동향을 보면,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한 인지행동접근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인지행동접근법에서는 고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지적·행동적 요인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동안 소외되어온 약물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약물사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인지행동접근법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약물중독의 재발과 사회학습이론

약물의 사용은 내성을 유발시켜 약물을 사용하는 개인은 점차 약물의 양을 늘려나 가며 사용하는 약물의 양을 줄이거나 약물사용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경우 신체적, 정신적 금단증상을 경험하게 된다. 약물남용 클라이언트가 전문적 치료와 더불어 약물사용을 중단하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금단증상은 점차 사라지게 되나, 그들 중 상당 비율은 다시 약물을 사용하여 치료 이전의 상태로 되돌아가는 경향이 높다(Beck et al., 1993). 재발(relapse)은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동안 사용을 중단한 약물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로 정의되며(Baer et al., 1986; McKay, 1999에서 재인용), 약물남용 치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중의 하나이다. 왜냐하면 약물남용 클라이언트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치료 후 3개월 동안의 재발율이 70%에 이르기 때문이다(Hunt et al., 1971; Laws, 1999에서 재인용). 이와 같은 높은 재발율을 고

려할 때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들에게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은 자명하다.

최근 알코올 및 약물남용 치료프로그램의 기초를 제공한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에 따르면,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들은 대인관계상의 문제, 약물을 권유하는 주위의 압력 등과 같은 고위험 상황을 적절히 다룰 수 있는 인지적, 행동적 대처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처수단으로 약물사용을 선택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효과적인 대처 기술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Monti et al., 1989). 특히 Bandura의 사회학습이론은 인지적 사회학습이론(cognitive social learning theory)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약물사용과 같은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개인의 인지적 요인의 역할을 강조하며 인지적 요인으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이 핵심 개념 중의 하나이다(Abrams et al., 1987). Bandura(1977)는 자기 효율성을 고위험 상황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에 직면했을 때 개인이 그 요인을 효과적으로 다루기 위해 요구되는 특정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인식 또는 판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개인이 고위험 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석, 평가할 경우 그 개인에게 있어서 고위험 상황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지되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그 개인은 고위험 상황이 개인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자기효능감은 효능 기대감(efficacy expectation)과 결과 기대감(outcome expectancy)로 구분되기도 하는데, 효능 기대감은 특정 결과를 생산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동을 성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개인의 확신을 의미하고, 결과 기대감이란 특정 행동이 특정 결과로 이끌 것이라는 개인의 추측 (예를 들면,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다)을 의미한다(Bandura, 1977).

사회학습이론에서 강조하는 자기효능감의 개념은 약물남용분야에도 적용되어 약물이 개인에게 주는 효과와 고위험 상황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개인의 믿음이 약물의존을 결정짓는 주 요인으로 보고 있다(Abrams et al., 1987). 약물이 긴장과 불안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거나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다고 기대하는 개인이나 자신에게 닥친 문제상황을 자신의 능력으로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인지하는 개인은 약물을 사용하고 점차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고 보는 것이다. 사회학습이론은 더 나아가 자기효능감은 고위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한 대처 기술을 결정한다고 주장한다(Abrams et al., 1987). 자기효능감이 높은 개인은 보다

적극적이고 적합한 대처기술을 사용하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개인들은 약물사용과 같은 부적합한 대처기술을 사용한다. 약물사용은 일종의 부적합한 대처방법으로써 약물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가장 좋은 또는 유일하게 활용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될 때 개인은 약물사용을 선택하고 약물을 남용하게 된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자기효능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중에서 과업성취(performance accomplishments) 또는 개인의 이전 경험, 모델링, 설득(social or verbal persuasion), 생리적 상태가 주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Bandura, 1977). 과업성취란 고위험 상황의 해결과 관련된 개인의 직접적인 경험(성공 또는 실패)을 말하는 것으로써 개인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했을 경우 그리고 이런 경험이 축적되면 개인의 자기 효율성은 향상된다. 타인의 성공적인 문제해결을 관찰(모델링), 성공적으로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고 주위로부터의 설득, 개인의 신체적 정서적 상태가 개인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준다. 이상의 4가지 요인 중 과업성취가 자기효능감 증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이다(Bandura, 1977). 약물사용과 관련해서 이를 적용시켜 보면, 개인이 문제상황을 다루는데 약물이 문제해결 또는 문제상황과 관련된 감정을 처리하는데 효과적이었다는 경험을 한 개인은 이후에도 문제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약물을 사용하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개인은 약물에 의존하게 된다.

이상의 원리를 요약하면 개인의 자기효능감과 적절한 대처기술이 약물남용 및 의존을 결정짓는 주 요인이며 약물중독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자기 효율성의 증진과 적합한 대처기술의 습득이 중요하며 자기효능감과 대처기술은 상호의존적이라는 것을 사회학습이론은 제시하고 있다.

2. 인지행동접근법

사회학습이론은 약물중독치료와 예방에도 적용되어 약물중독을 포함한 정신건강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많이 이용되고 있는 인지행동접근법의 개발의 발판이 되었다(Longabaugh et al., 1999). 인지행동접근법은 사회학습이론과 마찬가지로 약물사용을 고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규정하고(Kadden, 1994) 효과적인 대처기술의 부재가 재발을 야기하기 때문에 고위험 상황을 밝히고 이에 약

물을 사용하지 않고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의 습득을 강조한다(Longabaugh et al., 1999).

학습된 약물사용은 다양한 개입방법을 통해 수정되어질 수 있는데 인지행동접근법에서 약물사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자주 활용되는 효과적인 기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약물의 효과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를 변화시키는 것으로써 이는 Bandura(1977)가 말하는 결과 기대감(outcome efficacy)의 수정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들은 약물사용의 부정적 결과는 최소화하고 긍정적 결과는 극대화시키려는 믿음이 강하다. 이와 같은 약물의 효과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수정하기 위해 장단점분석(advantages-disadvantages analysis)기법을 이용하여 약물의 효과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킨다(Beck et al., 1993). 둘째로 고위험 상황에 성공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과 기술이 있다는 신념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회학습이론에서 말하는 효능 기대감의 증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효율성 기대감의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과업성취, 즉 고위험 상황의 성공적인 해결을 직접 경험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 기대감의 증진을 위해 대처기술의 교육, 훈련, 적용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대처기술훈련의 단계로는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로 하여금 약물사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고위험 상황을 밝히게 하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고 역할극 등을 통해 대처기술을 연습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는 효과적인 대처기술을 습득한 후, 이를 그들의 실제 문제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하며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축적되면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의 효율성 기대감은 증진되어 약물의존도 점차 감소될 것이다(Monti et al., 1989). 약물거부훈련, 자기주장 훈련, 의사소통기술 등이 대처기술에 포함된다.

인지행동접근법을 이용한 대표적인 약물중독치료모형으로 Marlatt의 재발예방(relapse prevention)모델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인지행동접근법처럼 재발예방모델에서도 약물사용의 재발을 유발시킬 수 있는 문제상황을 밝히고 그 상황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을 선택, 실행하여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문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된다.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의 인식과 성취감은 약물남용의 재발 가능성을 차츰 줄일 수 있다. 재발예방모델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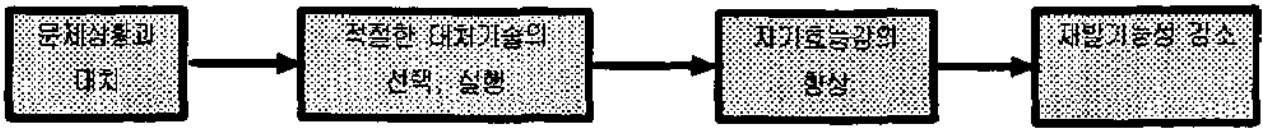


그림 1. 약물중독 재발예방 모델.

출처 : Marlatt, G.A. & Gordon, J.R. (1985). Relapse Prevention. New York: Guilford Press.

3. 선행연구

인지행동접근법은 다양한 약물남용 치료접근법 중에서 그 효과성이 검증된 접근법으로서(Longabaugh et al., 1999) 여러 연구결과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인지행동접근법을 활용한 약물중독 치료분야에 있어 선구자인 Monti 등(1997)은 코카인 중독자들을 대상으로 인지행동접근법에 기초한 대처기술훈련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설계를 실시하였다. 대처기술훈련 프로그램은 고위험 상황을 밝히고 각 상황에 적절히 대처하는 방법을 역할극을 통해서 연습하고 이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프로그램 평가방법으로는 프로그램 종결 직후, 1개월 후, 3개월 후 총 세 차례에 걸쳐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물사용여부를 측정하였으며 약물치료와 이완훈련(relaxation training)을 제공받는 통제집단을 두어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을 비교할 수 있게 하였다. Monti 등의 연구결과는 대처기술훈련을 제공받은 실험집단이 통제집단 보다 프로그램 종결 후에 코카인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약물중독자들에게 고위험 상황에 대처하는 기술을 교육시키는 것이 그들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Patten 등(1998)은 알코올중독자들의 금연을 위해 인지행동접근법을 활용하였는데 Monti 등(1997)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에서도 금연을 위해 행동상담(behavioral counseling)과 인지행동접근법을 모두 제공받은 실험집단을 행동상담(behavioral counseling)만을 제공받은 통제집단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실험집단에 포함된 참여자들의 금연율이 통제집단의 참여자의 금연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더욱 고무적인 연구결과는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가 프로그램 종결 직후뿐

만 아니라 1년 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 인지행동접근법의 효과성을 입증하고 있다. Carroll 등(1991)도 코카인 중독자의 치료를 위해 인지행동 접근법에 기초한 재발예방치료를 제공받은 실험집단이 다른 형태의 치료를 제공받은 통제집단 보다 프로그램 참여율(실험집단 67%, 통제집단 38%)도 높았을 뿐만 아니라 실험집단 참여자의 57%가 약물사용을 중단한 반면 통제집단 참여자의 9%만이 약물사용을 중단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인지행동접근법이 약물사용의 중단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다.

외국에서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인지행동접근법의 효과성을 활발하게 연구해 온 반면, 국내의 연구동향을 보면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에 대한 연구가 극소수이며 연구마다 집단 프로그램을 통한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의 자존감 향상 또는 자아 개념 강화 등과 같이 거의 유사한 주제가 연구(김기봉, 2000; 유지영, 1999)되어 온 실정이다. 최근 들어 김용진(2000)이 수행한 연구만이 약물남용의 재발을 예방하는데 효과성이 입증된 인지행동접근법을 적용한 연구일 뿐 그 외의 국내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Ⅲ. 연구방법

1. 연구가설

인지행동접근법에 기초한 본 프로그램을 통해 약물사용의 재발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갖는다.

가설 1: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2: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줄 것이다.

가설 3: 본 프로그램은 프로그램 참가자의 대처기술에 영향을 줄 것이다.

2. 프로그램 대상자

본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자 모집은 서울보호관찰소 OO지소의 협조로 이루어졌으며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는 약물사용으로 인해 마약관리법에 저촉된 보호관찰대상자로서, 법원으로부터 수강명령 처분을 받은 남성 5인과 여성 3인으로 총 8명의 성인으로 구성되었다. 수강명령제도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법자에게 보호관찰 처분과 병과 되어 부과되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명령으로 일정기간 동안 교육 또는 학습을 받도록 하여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상자의 경우 수강명령 프로그램에 최소 40시간 이상을 참여해야 한다.

3.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절차

1) 프로그램 내용

본 연구에서 활용한 프로그램은 Monti 등(1989)의 대처기술훈련지침서에 기초하여 개발된 미국 알코올남용 알코올중독 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lcohol Abuse and Alcoholism)의 인지행동 대처기술 치료매뉴얼(cognitive behavioral coping skills therapy manual)에 기초하여 구성하였다. 매뉴얼은 사회학습이론에 기초하여 구성되었으며 알코올을 포함한 약물사용의 재발과 관련된 고위험 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의 증진에 초점을 두고 있다(Monti et al., 1989).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약물사용에 대한 갈망에 대처하는 방법

약물중독자들이 흔히 경험하는 약물사용에 대한 갈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갈망을 이야기하는 요인과 갈망을 적절히 다루는 방법을 학습한다.

■ 약물에 대한 생각을 다루는 방법

약물사용의 이익과 손실에 대해 토론하고 약물사용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 학습한다.

■ 문제해결

약물사용을 포함한 다양한 문제상황을 건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문제해결과정을 소개하고 문제해결기술을 학습한다.

■ 약물거부훈련기술

약물을 거부하는 기술에 대해 습득하게 한 후, 자신이 약물을 권유받는 상황에서 어떠한 기술을 사용할지 역할극을 통해 학습하게 한다.

■ 위기상황을 위한 계획

약물사용의 재발을 유발할 수 있는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다양한 방법을 학습한다.

■ 부적절한 결정을 막기 위한 훈련

재발과 관련된 위험요인(사고, 행동, 결정)을 합리화하고 최소화하는 것을 예방하는 방법을 학습한다.

위의 내용이외에 본 프로그램의 기반이 되는 사회학습이론과 인지행동접근법의 핵심내용에 대한 교육을 첫 번째 모임에서 실시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앞으로 전개될 프로그램 내용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마지막 모임에서는 그 동안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프로그램 참가자 각각 자신의 집단경험을 공유하였다.

2) 운영절차

본 프로그램은 2000년 3월부터 주 2회씩 5주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프로그램은 서울보호관찰소 OO지소에서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 보호관찰소측과 프로그램 운영방식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를 위한 수강명령 프로그램은 하루에 8시간씩 약 1주일 동안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 운영방식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집중력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2회 모임을 갖는 것으로 결

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일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자신들의 직장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반발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따라서 프로그램 참가자들에게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 이유와 본 프로그램의 목적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권유하였고 모든 참가자들이 이에 동의하였다.

프로그램의 진행은 2명의 사회복지사가 담당하였으며 프로그램이 실시되기 전 프로그램 진행자는 본 연구자에 의해서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의 특성, 프로그램 내용 및 운영과 관련된 훈련을 제공받았다. 첫 모임에서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사전조사를 그리고 마지막 모임에서 사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후 약 2주간의 간격으로 프로그램 참가자와의 개별면접을 실시하여 클라이언트의 상황에 대한 점검과 더불어 사후조사를 두 차례 더 실시하였다. 사후조사를 두 차례 더 실시한 목적 중의 하나는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평가하기 위함이었다. 사실 본 프로그램의 효과가 어느 정도 지속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후조사간의 간격을 더 넓혀야 했으나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동의를 구하기가 용이하지 않았다. 그러나 약물사용의 재발이 3개월 이내에 발생하는 비율이 높다(Hunt et al., 1971; Beck et al., 1993에서 재인용)는 점을 참고한다면 프로그램 평가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적 기준은 만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4. 조사도구

언급하였듯이 사회학습이론은 자기효능감(결과기대감과 효능 기대감)과 고위험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약물사용의 재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Monti et al., 1999). 따라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프로그램 참여자의 인지적, 행동적 대처능력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활용한 도구는 다음과 같다.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참여자의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는 Beliefs about Substance Use(Beck et al., 1993)으로 측정하였다. Beliefs about Substance Use(이하 BSU)는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약물남용 클라이언트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또는 신념들이다. BSU는 Bandura의 결과기대감이나 음주기대(alcohol expectancies)와 유사한 개념으로 불

수 있으며 약물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신념, 기대 또는 태도는 약물사용의 재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선행연구들은 보고하고 있다. 변안된 BSU의 신뢰도는 .84로 양호하였다.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은 DiClemente 등(1994)이 개발한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이하 AASE)을 본 연구의 내용에 맞게 수정, 변안하여 측정하였다. AASE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이며 부정적 감정상태, 사회적 환경, 신체 상태, 금단증상 및 욕구 등 약물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을 질문하고 각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약물사용을 거절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평가한다. 즉 참여자의 효능 기대감을 측정하는 도구이다. AASE는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자신이 없다'에 1점을 '매우 자신이 있다'에 5점을 부여하며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는 .98이었다.

대처기술: 대처기술은 Carver 등(1989)이 개발한 COPE으로 측정하였다. COPE은 13개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5개의 하위척도는 문제중심적 대처기술(problem-focused coping skills)을 5개의 하위척도는 정서중심적 대처기술(emotion-focused coping skills)을 측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문제중심적 대처기술만을 측정하였는데,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문제중심적 대처기술을 사용할 경우 그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PE은 많은 연구들이 대처기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여왔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97로 매우 높았다.

5. 조사설계 및 자료분석방법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를 위해 단일집단 사전-사후설계(one sample pretest-posttest design)를 기본으로 하여 약물사용의 재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변인들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단순히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를 비교하는 수준을 넘어 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시간적 간격을 두고 사후검사를 3차례 실시하였는데, 집단프로그램이 종결된 직후에 1차 사후검사를 그리고 약 2주 간격으로 사후검사를 2차례 더 실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본 프로그램에서 활용한 설계의 도식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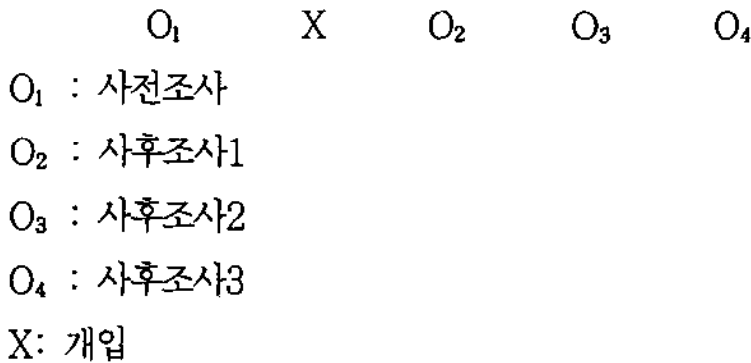


그림 2. 조사설계

본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물사용 대신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 대처기술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법적인 제재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참가자들이 이 기간 동안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는 낮으며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을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에 다시 접촉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매우 낮기 때문에 대안으로 이론과 선행연구결과들이 제시하고 있는 약물사용의 재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요인들을 측정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주요 자료분석방법은 Friedman test였다. Friedman test는 비모수통계로서 비모수통계를 사용한 이유는 본 연구의 경우 분석에서 활용한 사례 수가 총 8명으로 분석을 위해 수집된 자료가 모수통계의 가정(assumptions)을 만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Friedman test는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처럼 동일한 조사대상자들을 상대로 여러 차례 측정하는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의 경우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속변인을 네 차례에 걸쳐 측정하였기 때문에 Friedman test를 활용하여 종속변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IV. 연구결과

1. 프로그램 참가자의 특성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이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총 8명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남성이 5명이고 여성이 3명이었다. 참가자의 연령은 27세부터 52세로 다양하였으며 대부분이 30, 40대로 평균연령은 39.63세였다. 참가자들의 학력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이었으며 중학교 졸업과 초등학교 졸업이 각각 1명씩이었다. 참가자의 직업은 기술직과 단순노동이 3명, 자영업에 종사한다고 응답한 경우와 무직이 각각 2명이었고 전업주부가 1명이었다.

〈표 1〉 프로그램 참가자의 일반적 특성

참가자	성	연령	학력	직업
클라이언트 1	남	27	고졸	단순노동
클라이언트 2	여	32	중졸	기술직
클라이언트 3	남	44	고졸	자영업
클라이언트 4	남	52	고졸	자영업
클라이언트 5	여	40	고졸	전업주부
클라이언트 6	남	40	고졸	기술직
클라이언트 7	여	37	초졸	무직
클라이언트 8	남	45	고졸	무직

〈표 2〉는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물 관련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약물은 일반적으로 중추신경억제제, 중추신경흥분제, 환각제, 흡입제로 구분된다. 중추신경억제제의 대표적인 약물로는 알코올이며 의료적으로 마취와 불안감소를 위해 사용된다. 중추신경흥분제는 에너지를 증가시키고 감정을 고조시키며 식욕을 저하시키는 특징이 있으며 카페인, 코케인 등이 속한다. 환각제는 인지, 사고, 감정을 왜곡시키는 영향이 있고 가솔린, 본드 등의 흡입제는 현기증, 흥분 등을 야기시킨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주로 사용한 약물은 환각제와 중추신경흥분제로 대마초, 메스암피타민(히로뽕), 암피타민(필로폰) 등이었으며 약물사용기간은 1-3년 정도로 보고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모든 참가자들의 경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을 정도로 금단증상이 심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았으며 참가자들이 경험한 증상은 수전증과 같은 떨림증과 땀을 흘리는 증상과 더불어 소수이긴 하지만 보다 심각한 금단증상인 환시, 환촉, 등을 경

험한 참가자도 있었다. 약물사용 동기를 보면 대부분이 호기심과 주위 권유를 지적하였으며 음악적 느낌을 더하기 위해 약물을 사용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약물사용 동기는 사회학습이론과 인지행동접근법에서 언급하는 고위험 상황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 같다. 즉 호기심과 음악적 느낌은 약물이 자신에게 주는 효과를 긍정적으로 기대하는 일종의 결과 기대감으로 볼 수 있고 주위의 권유는 약물사용과 관련된 환경적 영향으로 인지행동치료 프로그램은 클라이언트에게 또래압력을 효과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교육 및 훈련시키고 있으며 본 프로그램의 내용에도 이를 포함시키고 있다.

〈표 2〉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물관련 특성

참가자	주요 사용약물	약물사용 동기	약물사용 기간	금단증상
클라이언트 1	대마초	음악적 느낌	2년	없음
클라이언트 2	메스암피타민	주위 권유	2년	없음
클라이언트 3	암피타민	호기심	3년	진땀
클라이언트 4	암피타민	주위 권유	1년	진땀, 떨림증, 환시
클라이언트 5	메스암피타민	주위 권유	2년	없음
클라이언트 6	대마초	호기심	3년	없음
클라이언트 7	메스암피타민	호기심	2년	떨림증, 환축, 환시
클라이언트 8	암피타민	호기심	2년	없음

2. 프로그램 참가자의 개인별 변화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 대처기술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는 방법으로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 언급하였듯이 참가자의 인지적, 행동적 대처기술은 사전조사 1회와 3차례의 사후조사를 통해 측정되었다.

1)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표 3〉은 본 프로그램 참가자의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와 관련된 기술통계를 보여

주고 있다.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는 BSU로 측정하였으며 척도 점수상 점수가 높을 수록 약물사용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점수가 낮을 수록 약물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약물사용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약물사용의 감소 또는 단약과 관련이 있다. 4차례에 걸쳐 실시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개인별 변화가 <표 3>과 그림 3에 제시되어 있다. 사전조사점수와 세 번째 사후조사점수를 비교해 보면, 8명의 참가자 중 6명의 세 번째 사후조사점수가 사전조사점수보다 낮아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이전에 비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집단 전체적으로서의 변화를 각 조사의 평균값의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첫 번째 사후조사시 BSU의 평균점수가 사전조사시의 평균점수보다 상승하였으나 두 번째 사후조사에서는 평균점수가 낮아지고 있으며 세 번째 사후조사의 평균점수도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별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변화

	사전조사	사후조사1	사후조사2	사후조사3
클라이언트1	25	36	22	30
클라이언트2	23	30	33	27
클라이언트3	27	46	24	25
클라이언트4	35	53	31	28
클라이언트5	51	38	31	29
클라이언트6	42	49	25	29
클라이언트7	32	43	25	26
클라이언트8	25	42	46	24
평균	32.5	42.13	29.63	27.25
표준편차	9.80	7.40	7.71	2.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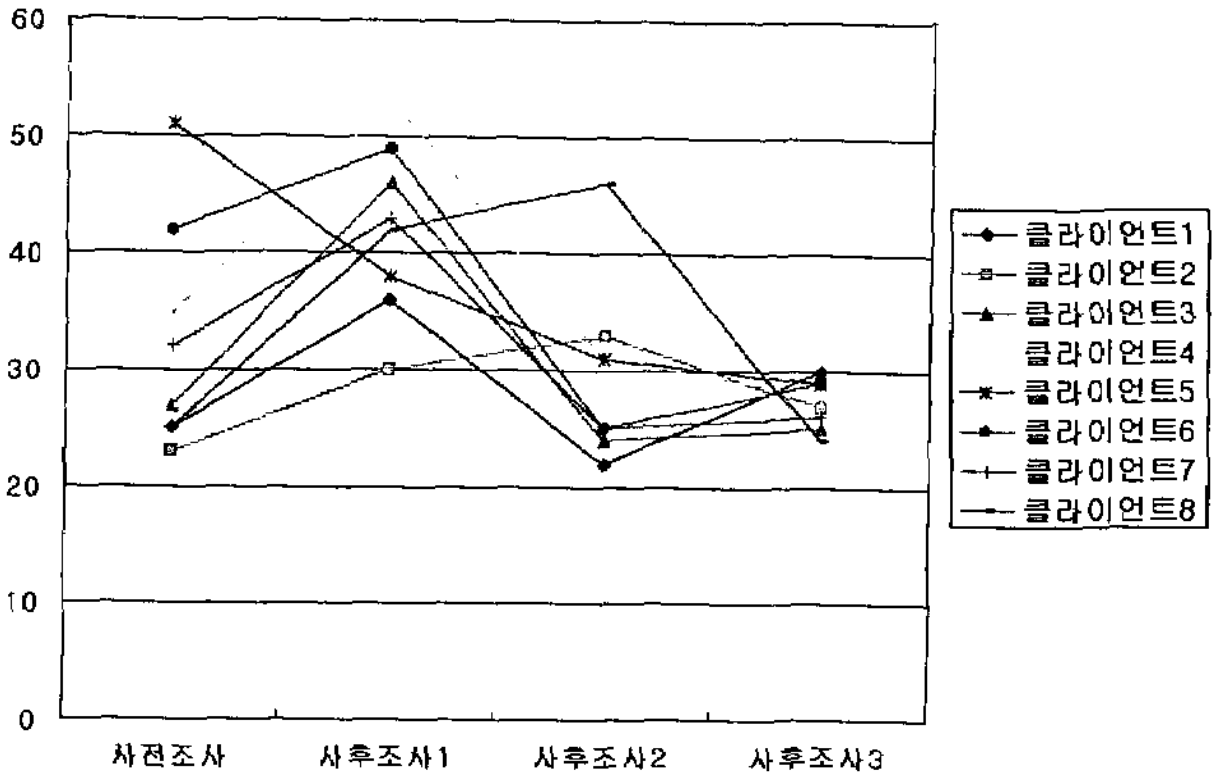


그림 3.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별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변화

2)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점수가 높을수록 약물사용과 관련된 상황에서 약물을 거절하고 사용하지 않을 자신에 대한 확신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의 변화를 프로그램 참가자 개별적으로 살펴보면(표 4와 그림 4), 8명의 참가자 중 5명의 자기효능감 점수는 시간이 흐르면서 대체로 상승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들의 경우 약물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자신감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는 의미이다. 나머지 3명의 참가자들의 패턴을 보면 1명(클라이언트 1)은 사전조사점수와 세 번째 사후조사점수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2명의 경우(클라이언트 3과 클라이언트 8) 세 번째 클라이언트의 사후조사점수가 사전조사점수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사전조사점수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의 평균과 표준편차도 <표 4>에 제시되어 있는데 평균점수

를 보면 사전조사시의 평균점수가 78.38로 가장 낮았으며 세 번째 사후조사시의 평균점수가 93.5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집단 전체적으로는 약물사용과 관련된 상황에서 약물을 거절하고 사용하지 않을 자신에 대한 확신이 점차 향상되고 있었다.

〈표 4〉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별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의 변화

	사전조사	사후조사1	사후조사2	사후조사3
클라이언트1	99	97	84	99
클라이언트2	91	93	82	95
클라이언트3	100	80	100	95
클라이언트4	76	73	88	90
클라이언트5	55	83	92	92
클라이언트6	76	80	94	92
클라이언트7	33	80	96	92
클라이언트8	97	78	72	93
평균	78.38	83.0	88.5	93.5
표준편차	23.95	8.00	8.99	2.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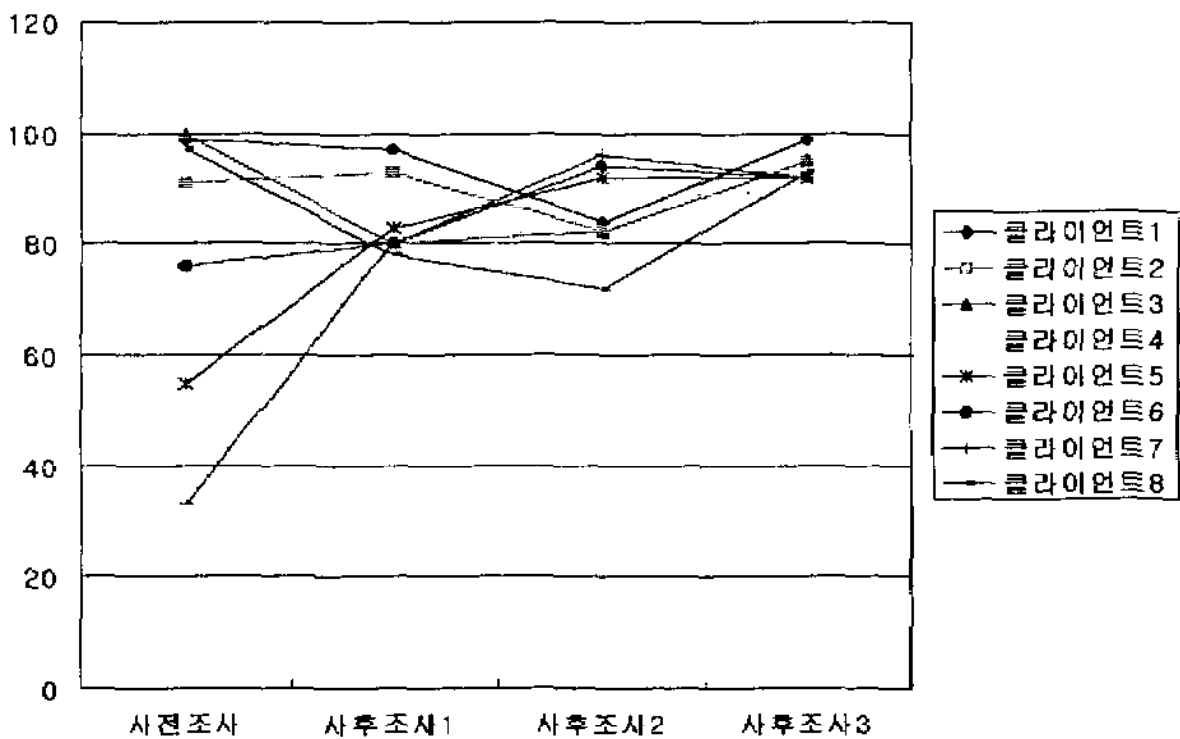


그림 4.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별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의 변화

3) 대처기술

대처기술은 문제상황과 같은 고위험 상황에 직면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고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대처기술의 변화에 대한 결과도 앞서 다룬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와 자기효능감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의 변화가 <표 5>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는데 8명의 참가자 중 5명의 세 번째 사후조사점수가 사전조사보다 높게 나타나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의 문제대처능력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처기술의 변화의 결과를 <표3>과 그림 3(약물사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과 비교해 보면 한가지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즉, 첫 번째 사후조사시 참가자의 대처기술과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다가 이후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여 최종 사후조사의 결과가 사전조사의 결과보다 향상된 점이다. 일반적으로 사회복지학계의 논문들을 보면 사후조사를 프로그램 종결 직후에만 측정하고 있는데, 만약 본 연구에서도 사후조사를 프로그램이 종결된 직후에만 실시하였다면 본 프로그램이 프로그램 참가자의 태도나 대처기술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준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사후조사를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실시함으로써 Cournoyer(2000: 327)가 언급한 것처럼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호전되기 전에 악화된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5>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별 대처기술의 변화

	사전조사	사후조사1	사후조사2	사후조사3
클라이언트1	21	58	20	61
클라이언트2	65	57	62	69
클라이언트3	72	55	79	69
클라이언트4	65	49	22	56
클라이언트5	52	51	69	68
클라이언트6	42	52	69	68
클라이언트7	61	49	54	73
클라이언트8	78	36	46	65
평균	57.0	50.88	52.63	66.13
표준편차	18.35	6.92	21.93	5.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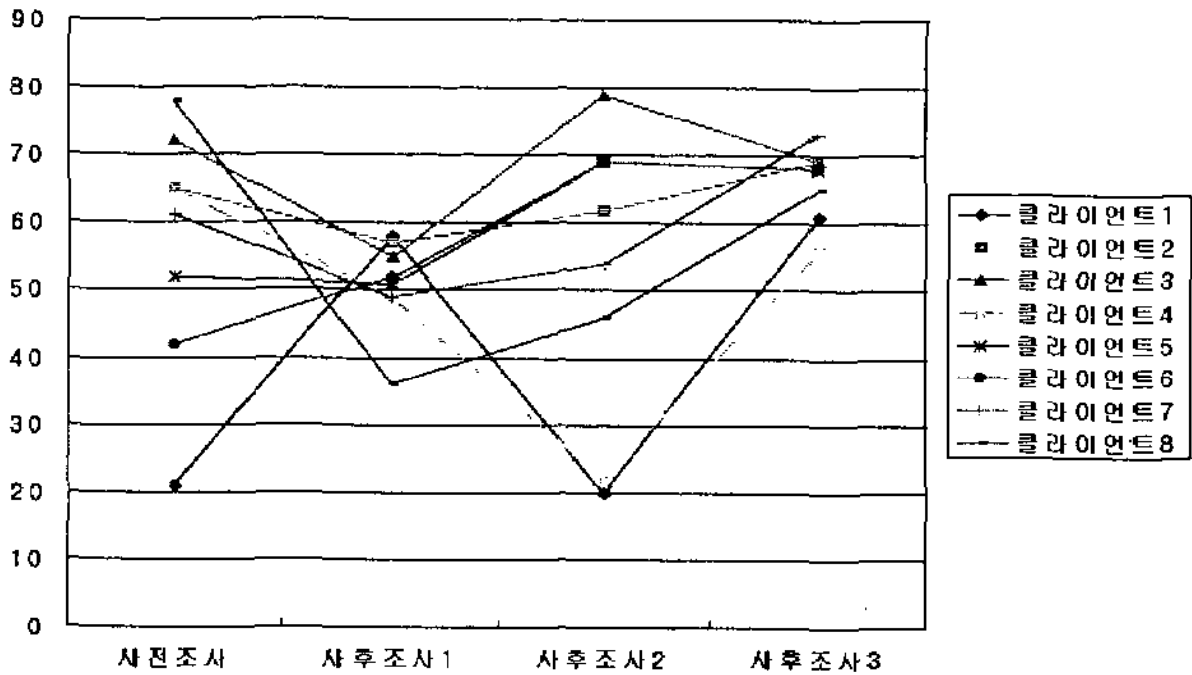


그림 5. 프로그램 참가자 개인별 대처기술의 변화.

3. 가설검증

1)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변화

〈표 6〉은 4차례에 걸쳐 측정된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이며 참가자의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chi^2 = 10.05, p=.018$) 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의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가 점차 부정적으로 변하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6〉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의 변화에 대한 Friedman Test 결과

	Mean Rank	df	χ^2
사전조사	2.63	3	10.05*
사후조사1	3.63		
사후조사2	2.00		
사후조사3	1.75		

* $p < .05$

2)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의 변화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는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의 결과와는 달리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의 변화에 대한 Friedman Test 결과

	Mean Rank	df	χ^2
사전조사	2.25	3	5.14
사후조사1	1.88		
사후조사2	2.63		
사후조사3	3.25		

3) 대처기술의 변화

대처기술의 변화에 대한 유의성 검증 결과(표) p값이 .05로 나타나 본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대처기술의 변화가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변화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표 8〉 대처기술의 변화에 대한 Friedman Test 결과

	Mean Rank	df	χ^2
사전조사	2.75	3	7.80+
사후조사1	1.50		
사후조사2	2.50		
사후조사3	3.25		

+ p = .05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약물남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최근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인지행동 접근법에 기초한 집단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고려한 요인으로는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단약 관련 자기효능감, 대처기술이었다. 인지행동접근법은 약물남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이러한 인지적·행동적 요인의 증진을 강조하고 있다. 본 연구의 연구가설이 부분적으로만 입증되었지만,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본 프로그램을 통해 프로그램 참가자는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과 비교하여 약물사용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약물사용과 관련된 상황을 직면했을 때 약물을 사용하지 않을 인지적 능력과 문제상황을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약물사용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클라이언트의 약물문제가 가족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사회복지학과와 실천현장이 그 동안 소외시하였던 약물문제를 지닌 클라이언트에 대해 보다 깊고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의 현실에서 약물문제를 지닌 성인을 상대로 본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겠다. 둘째, 보호관찰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과는 달리 본 프로그램의 경우 최신 이론을 토대로 구성되어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가 분명하며 프로그램 운영방식도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실시되었다는 점도 본 연구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론은 일종의 지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Corey, 1991) 집단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하는데 필수적이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의 이론적 근거는 매우 중요하다. 셋째, 프로그램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단 프로그램의 효과성 평가는 프로그램 실시 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종결된 직후에 사후조사를 실시하여 비교한다. 그러나 이럴 경우 프로그램이 단기간에 실시된다면 클라이언트가 프로그램의 내용을 소화하고 이를 자신의 실생활에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음은 물론이고 이로 인해 프로그램도 효과적이기 못하다는 결과를 낳게될 수 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는 호전되기 전에 악화된다는 Cournoyer(2000)의 언급도 문제상황의 변화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의 평가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에게도 시간적 여유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우리의 실천활동에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1.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와의 사회복지실천을 위한 제언

아직까지 사회복지사가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를 접촉하는 경우가 낮아 이들과의 사회복지실천은 새로운 분야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집단을 운영하게 될 경우 다른 대상을 상대로 집단을 운영할 때와는 뚜렷한 차이점이 있다. 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경험하게 된 뚜렷한 특징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의 태도를 들 수 있다. 예를 들면, 약물남용 클라이언트가 사용한 약물을 전혀 사용해 보지 않은 진행자가 자신들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경우를 본 프로그램을 통해서 접할 수 있는 현상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프로그램에서만 아니라 본 연구자의 경험에 따르면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와의 집단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였다. 프로그램 진행자에 대한 클라이언트가 갖는 이러한 의문은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와의 관계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였을 때 이에 적절히 대응하여 클라이언트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들이 보이는 또 다른 공통적인 현상 중의 하나가 부인(denial)이다. 사실 알코올 및 약물중독은 부인하는 병(a disease of denial)으로 불리듯이(Flores, 1988) 다수의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들은 자신이 약물사용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보다는 언제든지 약물사용을 중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클라이언트들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였다.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개입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의 부인은 이들을 상대로 집단을 운영하게 될 사회복지사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중요한 이슈 중의 하나이다. 집단은 동일한 문제를 지닌 집단 성원들과의 집단 경험을 통해서 클라이언트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장(場)이기 때문에 집단경험은 특히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에게 더욱 더 중요하며 효과적으로 집단을 운영하는 사회복지실천기술의 습득이 요구된다.

셋째, 약물남용 클라이언트를 상대로 하는 집단은 대부분 보호관찰소 내에서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집단 프로그램 운영(예를 들면, 프로그램 기간 등)과 관련해서 보호관찰소측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클라이언트와의 협의도 필요한데 그 이유는 수강명령으로 본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부분의 클라이언트는 단기간에 프로그램이 종결되어 수강명령의무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본 프로그램을 기존의 프로그램 기간에 비해 두 배 이상으로 유지하여 실시하고 프로그램이 종결된 후 사후조사를 실시할 수 있었던 것도 보호관찰소와 클라이언트의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특히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의 경우 최종 목표는 클라이언트가 약물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유지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실행하는 동안 보호관찰이라는 법적 수단 때문에 재발을 보이는 참가자는 없었으나, 법적인 제재를 벗어난 후 참가자의 약물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와 보호관찰소 등과 같은 관계 기관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와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클라이언트 및 관계 기관과의 협의도 사회복지사가 갖추어야 할 사회복지실천기술이다.

2.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

마지막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집단프로그램 효과의 지속성을 분석하기 위해 사후조사를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세 차례 실시한 결과 종속변인(예: 약물사용에 대한 태도, 대처기술)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다가 이후에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와 같은 종속변인의 변화패턴은 김용석 등(2001)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 프로그램을 평가한 연구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 결과이기도 하였다. 집단 내에서 자신과 타인의 과거 약물사용행위를 털어놓고 경청하는 분위기는 약물남용 클라이언트의 약물에 대한 욕구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도 있다. 또한, 다수의 클라이언트들이 집단 환경에 적응하고 집단 내에서 배운 내용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도 있겠다. 이와 같은 해석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러한 연구는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상당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둘째, 후속연구를 통해 인지행동접근법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연구결과를 축적해

표준화된 치료모델을 개발하는 우리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효과성이 입증된 인지행동접근법과 더불어 약물사용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지지적 사회관계망 형성에 대한 개입을 병행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클라이언트의 노력만으로 약물사용을 지속적으로 중단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프로그램 이후에도 약물 사용에 대한 욕구, 위기상황 등 자신들의 문제 또는 성공사례 등을 서로 토의하고 배울 수 있는 자조집단 등을 형성하고 이에 대한 효과성을 평가하는 후속연구도 필수적일 것이다.

• 참고문헌 •

대검찰청. 2000. 《마약류범죄백서》.

김기봉. 2000. "자기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마약사용극복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김용석, 윤희미, 김정우, 김성천. 2001. 《학교중심 청소년 음주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성 평가》. 보건복지부.

김용진. 2000. "약물중독자들의 재발예방을 위한 단기집단 프로그램의 적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제9집. pp.25-54.

유자영. 1999. "약물남용자의 자아개념 강화를 위한 생태체계적 집단사회사업 효과성 연구."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논문.

Abrams, D.B. & Niaura, R.S. 1987. Social Learning Theory. In H.T. Blane & K.E. Leonard (eds.), *Psychological Theories of Drinking and Alcoholism* (pp.131-178). NY: Guildford Press.

Bandura, 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Bulletin*, 80(4), pp.286-303.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pp.122-147.

Beck, A.T., Wright, F.D., Newman, C.F. & Liese, B.S. 1993. *Cognitive Therapy of Substance Abuse*. NY: Guildford Press.

Carroll, K.M., Rounsaville, B.J., & Gawin.F.H. 1991. "A Comparative Trial of Psychotherapies for Ambulatory Cocaine Abusers: Relapse Prevention and Interpersonal Psychotherapy."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17(3), pp.229-247.

Carver, C.S., Scheier, M.F., & Weintraub, J.K. 1989. "Assessing Coping Strategies: A Theoretically Based Approach."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6(2), pp.267-283.

Corey, G. 1991. *Theory and Practice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Cournoyer, B. 2000. *The Social Work Skills Workbook, 3rd ed.* Pacific Grove, CA: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DiClemente, C.C., Carbonari, J.P., Montgomery, R., & hughes, S.O. 1994. "The Alcohol Abstinence Self-Efficacy Scale."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5, pp.141-148.

- Fern, E.F. & Monroe, K.B. 1996. "Effect-Size Estimates: Issues and Problems in Interpretation."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23, pp.89-105.
- Flores, P.J. 1988. *Group Psychotherapy with Addicted Populations*. NY: The Haworth Press.
- Kadden, R.M. 1994. "Cognitive-Behavioral Approaches to Alcoholism Treatment."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18(4), pp.279-286.
- Laws, D R. 1999. "Relapse Prevention: The State of the Ar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4(3), pp.285-302.
- Littleton J. 1998. "Relapse Prevention." *Alcohol Health & Research World*, 22(1), pp.22-23.
- Longabaugh, R., & Morgenstern, J. 1999. "Cognitive-Behavioral Coping-Skills Therapy for Alcohol Dependence." *Alcohol Research & Health*, 23(2), pp.78-85.
- Marlatt G.A. 1983. Stress of a Determinant of Excessive Drinking and Relapse. In LA Pohorecky & J Brick(eds.), *Stress and Alcohol Use*. Elsevier Science Publishing Co., Inc.
- Marlatt, G.A. & Gordon, J.R. 1985. *Relapse Prevention*. NY: Guildford Press.
- McKay, J.M. 1999. "Studies of Factors in Relapse to Alcohol, Drug and Nicotine Use: A Critical Review of Methodologies and Findings."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60(4), pp.566-575.
- Monti, P., Abrams, D., Kadden, R., & Cooney, N. 1989. *Alcohol Dependence: A Coping Skills Training Guide*. NY: Guildford Press.
- Monti, P.M., & Rohsenow, D.J. 1999. "Coping-Skills Training and Cue-Exposure Therapy in the Treatment of Alcoholism." *Alcohol Research & Health*, 23(2), pp.107-117.
- Monti, P.M., Rohsenow, D.J., Michalec, E.M., Rosemarie, A. & Abrams, D.B. 1997. "Brief Coping Skills Treatment for Cocaine Abuse: Substance Use Outcomes at Three Months." *Addiction*, 92(12), pp.1717-1728.
- Patten, C.A., Martin, J.E., Myers, M.G., Calfas, K.J., & Williams, C.D. 1998.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for Smokers with Histories of Alcohol Dependence and Depression." *Journal of Studies on Alcohol*, 59(3), pp.327-335.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4. *Cognitive-Behavioral Coping Skills Therapy Manual: A Clinical Research Guide for Therapists Treating Individuals with Alcohol Abuse and Dependence*. Rockville, MD: National Institute on Alcoholism and Alcohol Abuse.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to Prevent Relapse of Substance Abuse

Kim Yong-Seok

(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test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to prevent relapse of substance abuse. A total of 8 substance abusing adult cli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All the clients were charged with substance use at the time of implementing the program. Two master's level social workers operated the program, which was implemented in a probation office in Seoul. This study included Beliefs about substance use, abstinence self-efficacy, and coping skills as dependent variable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iveness. Cognitive-behavioral therapy emphasizes the enhancement of these cognitive and behavioral skills to prevent relapse of substance use. Research hypotheses were partially supported. That is, clients participated in the program had more negative attitude toward substance use and had more effective problem-focused coping skills. Although a research hypothesis of the enhancement of clients' self efficacy was not supported, their mean scores at the final posttest were lower than scores at pretest. This study suggests that more studies be needed to in order to confirm the effectiveness of cognitive-behavioral therapy with substance abusing clients